



당분간은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예상

은행 Weekly | 2026.8.18

Analyst 최정옥,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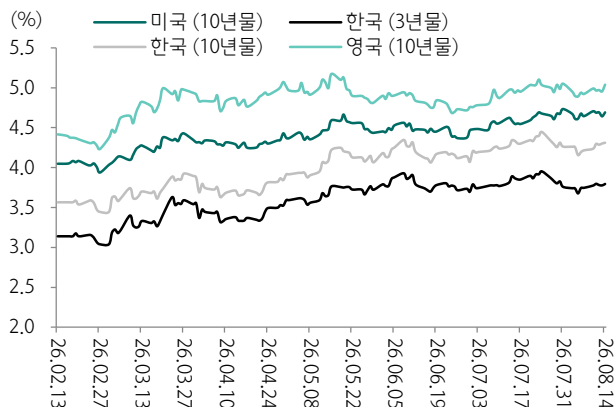
-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기존의 1.5%에서 3.0%로 두배 높여 증가분 30조원은 집단대출과 청년·실수요자층에 집중 배정. 다만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집값별로 2~6억원으로 되어 있는 주담대 한도 제한은 유지
- 5대 시중은행 외국인 예금 잔액은 올해 6월말 25.3조원으로 2021년말 대비 52.9% 증가해 외국인 고객 수 증가율 22.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 장기 체류 외국인 증가로 금융상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5대은행 외국인 전용 상품은 모두 20개
- 2년간 정기예금 특판 상품을 중단했던 신한은행이 올해들어 여섯번째 한정 판매에 나섰다. 주요 은행에서도 최고 연 3%대 후반의 예금상품이 잇달아 등장. 조달비용이 더 오르기 전에 특판과 수신금리 인상으로 하반기 자금을 선점하려는 움직임
- 부동산 허위 분양 대출사기가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4개 은행에서 490억원 규모로 확인된 가운데 지방은행, 상호금융권에서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며 현재 파악된 규모는 총 1,400억원.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8월 14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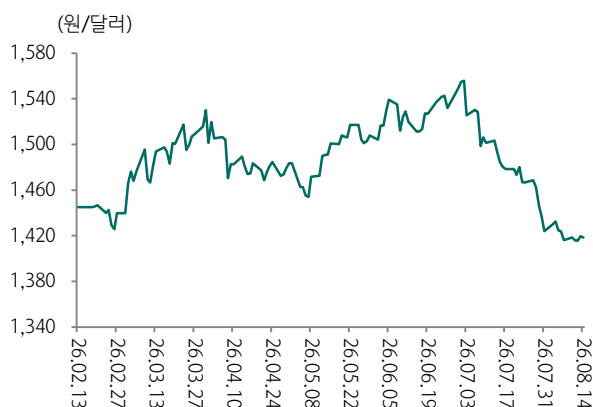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62	6.9	23.6		5,757,722.8	11.5	1.8	-6.9	65.6	704.9	-240.5	8,048.4	-8,420.7
은행	0.70	8.1	9.0	0.64	210,755.4	-2.7	-1.5	8.3	28.9	-177.5	-104.4	137.7	75.0
KB 금융	0.92	9.0	10.4	0.79	59,764.9	-4.2	-6.4	8.3	35.1	-76.9	-49.9	38.3	63.5
신한지주	0.81	9.7	9.5	0.68	50,419.0	-2.4	0.8	12.9	39.7	-11.5	-34.9	20.9	0.4
우리금융	0.60	7.7	8.3	0.52	24,536.6	-3.2	9.8	7.8	20.4	-20.8	17.5	33.0	-11.9
하나금융	0.72	8.2	9.3	0.64	36,490.9	-1.3	-0.7	11.8	41.3	-35.3	-34.7	42.4	-5.7
기업은행	0.43	5.9	7.5	0.54	16,267.5	-1.7	-3.3	-2.4	-2.6	-20.7	1.6	-2.9	23.4
BNK 금융	0.41	5.7	7.4	0.50	4,695.3	-0.1	-16.0	-12.6	-4.7	-14.2	-6.4	4.8	8.5
이M 금융	0.42	5.7	7.5	0.47	2,766.6	-2.2	-3.9	-3.7	12.3	2.7	0.0	-2.8	0.1
JB 금융	0.79	6.9	12.1	1.00	5,222.6	-2.9	3.9	12.2	9.2	-0.8	2.4	4.0	-3.2
카카오뱅크	1.49	18.3	8.3	0.73	10,592.1	0.9	-3.9	-1.1	2.8	-1.1	-1.3	0.6	0.4
삼성카드	0.62	9.0	7.0	1.90	5,625.0	1.5	1.5	-4.4	-13.1	-1.2	-0.1	-0.3	1.4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2.7% 하락해 KOSPI 상승률 11.5%를 대폭 초과하락. KOSPI가 반도체 위주로 크게 상승했고, 반도체 외 건설, 중공업, 소비재 등도 일정폭의 순환매 상승을 이어간 반면 은행주만 약세를 기록. 이러한 은행주 약세의 배경은 1) 미국 7월 CPI, PPI 등이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하회하면서 9월 금리인상 확률이 하락하는 등 글로벌 금리모멘텀이 약화되고 있고, 2) 수신금리 상승에 따른 3분기 NIM 하락 가능성 외에 증권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인해 은행지주사 2분기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3) 국내외 기관 매수세가 다시 반도체로 확산되면서 은행주 수급 여건이 취약해졌기 때문. 전주 미국 국채금리는 혼조세. 2년물 금리는 금리 인상 확률이 낮아지며 하락한 반면 10년물은 여전히 잠재 인플레이션 우려로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4.17%로 3bp 추가 하락했으며, 10년물 국채금리는 4.69%로 한주간 4bp 상승. 국내 국채금리는 한은이 물가상승 우려로 기준금리 연속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상당폭 상승세로 전환. 국내 3년물 국채금리는 3.80%로 한주간 5bp 상승했고, 10년물은 4.31%로 10bp 상승. 한편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 흐름이 이어짐. 대미투자 압박 재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도 확산되면서 1,416.1원으로 마감했고, 1,410원대에서 횡보 중. 외국인인 지난주에 KOSPI를 약 8.0조원 넘게 순매수하고 은행주도 1,38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국내 기관은 KOSPI를 7,050억원 순매수했음에도 은행주에 대해서는 1,780억원을 순매도. 지난 한주간의 은행 자사주 매입분 1,500억원을 제외한 국내 기관들의 실질 순매도 규모는 3,200억원 이상으로 지난주 은행주 약세는 국내 기관들의 대규모 매도에 주로 기인했음
- 전주에는 전통은행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반면 인터넷은행들과 삼성카드 주가가 소폭 상승.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다소 완화할 것으로 발표하자 투자심리 개선 영향이 전통은행들보다 조금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추정됨. 수급 특징주는 BNK금융. 지속적으로 순매도하던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했는데 특히 13~14일 양일간 100만주 넘게 순매수. 캐피탈그룹의 순매도가 일단락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좀더 필요하겠지만 향후 수급 전망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짐
- 우리 필드테스트에 따르면 7월 월중 NIM이 전월대비 추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 일부 은행의 6월 월중 NIM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7월에는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추가로 하락. 이는 1) 예보로 일시 납부 영향과 2) 5~6월 머니무브에 대응하기 위한 조달 확대 현상이 7월에도 이어졌고, 3) 조달 확대를 위해 수신금리 경쟁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일부 은행은 현재도 특판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 중. 8~9월 월중 NIM은 지금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아무튼 3분기 분기 NIM은 2분기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은행 평균 약 1~2bp 내외 하락이 예상되며, 대형시중은행들은 모두 3분기 NIM이 전분기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외국인노동자 대출의 자산건전성 악화로 인해 관련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JB금융의 경우는 3분기 NIM 하락 폭이 타행보다 더 커질 공산이 크다고 판단
-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대책을 발표하고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변경. 평균 증가율이 1.5%라는 것이지 은행별로 부여된 증가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두배가 될지는 알 수 없고 다시 수정된 목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 발표만 난 것이지 금융사에 내려온 세부 지침은 없는 상황. 총량 규제 상향 취지가 주택공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공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늘어난 대출여력은 대부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또는 청년 지원에 사용될 것이고, 일반 주담대로의 확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 아무튼 은행에는 대출성장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부동산PF 보증 확대를 통해 신속한 착공 지원을 하는 점도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고위험 주담대 유형 확대(고액·고가주택)를 통한 위험가중치 상향은 자본비율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을 듯
- 7월 KOSPI 급락시에 은행주는 주가가 상승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KOSPI 반등 장세에서 은행주가 추가 강세를 보이기 쉽지는 않은 상황. 게다가 글로벌 금리모멘텀이 둔화되고 있고, NIM 하락과 비은행(증권)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투자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 그러나 외국인들이 다시 은행주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 실적도 우려보다는 상당히 양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음. 당분간은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예상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BNK금융(매수/TP 24,500원), 우리금융(매수/TP 43,000원)

- BNK금융은 최근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현상이 그치면서 캐피탈그룹 매도에 따른 수급 불안 일단락 기대. OK그룹 매수세는 지속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경상 펀더멘털을 감안시 현 PBR 0.41배는 다소 과도한 저평가. 점차 리바운딩 시작될 것으로 예상
- 우리금융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투자심리가 큰폭 개선되고 있으며 외국인들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확대 중. 국고채 PD 담합 제재 이슈에서도 자유로운데다 최근 주가 상승에도 PBR이 0.60배에 불과해 경쟁대형은행지주 대비 valuation 매력 아직 높음

Global Peer Table

(2026년 8월 14일 종가 기준)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KOSPI	1.62	6.9	23.6		5,757,722.8	11.5	1.8	-6.9	65.6
은행	0.70	8.1	9.0	0.64	210,755.4	-2.7	-1.5	8.3	28.9
KB금융	0.92	9.0	10.4	0.79	59,764.9	-4.2	-6.4	8.3	35.1
신한지주	0.81	9.7	9.5	0.68	50,419.0	-2.4	0.8	12.9	39.7
우리금융	0.60	7.7	8.3	0.52	24,536.6	-3.2	9.8	7.8	20.4
하나금융	0.72	8.2	9.3	0.64	36,490.9	-1.3	-0.7	11.8	41.3
기업은행	0.43	5.9	7.5	0.54	16,267.5	-1.7	-3.3	-2.4	-2.6
BNK금융	0.41	5.7	7.4	0.50	4,695.3	-0.1	-16.0	-12.6	-4.7
IM금융	0.42	5.7	7.5	0.47	2,766.6	-2.2	-3.9	-3.7	12.3
JB금융	0.79	6.9	12.1	1.00	5,222.6	-2.9	3.9	12.2	9.2
카카오뱅크	1.49	18.3	8.3	0.73	10,592.1	0.9	-3.9	-1.1	2.8
삼성카드	0.62	9.0	7.0	1.90	5,625.0	1.5	1.5	-4.4	-13.1

미국

S&P 500	5.25	21.7	22.8	5.98	69,462.1	0.4	3.3	4.1	13.7
은행	1.79	13.5	13.3	1.15	2,396.1	1.9	5.2	21.6	12.8
Wells Fargo	1.57	12.8	13.3	1.03	268.6	1.8	4.7	21.1	-4.7
JPM	2.63	14.8	18.8	1.38	964.5	1.5	5.8	21.5	12.6
CITI	1.18	12.5	10.0	0.71	233.7	3.2	5.1	12.2	19.4
BOA	1.59	13.9	12.2	0.99	451.0	2.1	6.4	30.0	17.3
US Bancorp	1.62	12.5	13.4	1.18	101.9	2.3	5.3	23.5	22.6
PNC	1.71	13.3	13.2	1.27	102.5	1.7	2.8	21.4	23.1
BB&T	1.08	11.5	9.6	1.05	64.9	2.4	3.2	13.8	7.9

중국

상해A주지수	1.36	13.9	10.0	1.44	63,068.6	-0.3	-0.7	-4.8	-0.2
은행	0.66	7.2	9.4	0.69	11,997.0	0.6	1.6	2.6	-7.1
공상은행	0.65	7.3	9.0	0.68	2,575.9	0.4	0.8	3.6	-4.8
건설은행	0.71	7.8	9.6	0.73	2,054.4	1.7	2.0	7.2	10.3
농업은행	0.77	7.9	9.8	0.59	2,212.3	0.0	1.6	-4.3	-16.1
중국은행	0.66	7.9	8.5	0.64	1,784.1	1.9	0.2	4.1	2.6
교통은행	0.50	6.5	7.8	0.62	588.0	-0.4	1.5	4.8	-4.8
초상은행	0.81	6.4	12.9	1.13	978.5	-0.9	3.4	4.5	-9.1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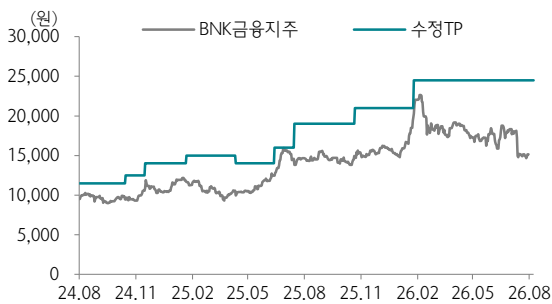
NIKKEI	2.96	22.4	12.8	4.58	1,074,552.7	4.7	1.4	9.8	36.8
은행	1.50	15.2	9.7	0.51	148,950.0	3.5	2.7	23.8	46.9
Mitsubishi UHF	1.94	18.4	10.8	0.61	43,364.6	3.4	2.4	28.1	46.6
Sumitomo Mitsui Financial	1.69	16.6	10.8	0.61	26,440.2	2.8	0.0	22.8	37.0
Mizuho	1.87	17.3	11.4	0.43	20,612.6	2.1	1.7	23.4	48.0
Sumitomo Mitsui Trust	1.44	16.0	9.3	0.37	4,826.0	3.4	4.4	23.3	44.6

유럽

MSCI Europe	2.43	16.2	14.5	1.78	15,816.0	-0.2	2.7	7.9	11.3
은행	1.61	11.9	13.7	0.74	2,265.9	0.7	6.1	21.3	23.4
HSBC	1.89	12.3	15.5	0.85	262.4	0.4	3.0	13.7	30.2
Santander	1.72	12.5	13.8	0.79	189.5	0.3	7.6	25.9	28.1
BNP Paribas	1.00	9.6	10.9	0.45	123.5	-0.3	9.6	25.4	38.8
Credit Agricole	0.82	8.8	9.8	0.29	61.1	3.0	13.3	25.8	15.1
Deutsche	0.94	10.0	9.6	0.44	63.7	1.3	6.6	27.0	0.6
Unicredit	1.84	11.5	16.8	1.24	128.5	1.0	3.7	17.8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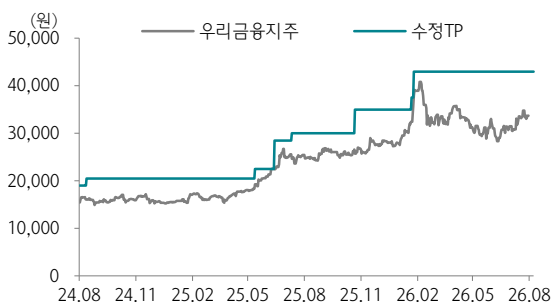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BNK금융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11	BUY	24,500		
25.11.7	BUY	21,000	-24.78%	-6.19%
25.8.1	BUY	19,000	-23.37%	-17.89%
25.6.30	BUY	16,000	-7.88%	-0.31%
25.4.28	BUY	14,000	-20.70%	-9.21%
25.2.7	BUY	15,000	-28.96%	-21.27%
24.12.2	BUY	14,000	-20.72%	-13.14%
24.10.31	BUY	12,500	-22.39%	-15.52%
24.5.2	BUY	11,500	-21.47%	-10.52%

우리금융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11	BUY	43,000		
26.2.7	BUY	37,500	-6.47%	-5.07%
25.11.7	BUY	35,000	-19.83%	-7.29%
25.7.28	BUY	30,000	-15.26%	-10.50%
25.6.30	BUY	28,500	-13.16%	-6.14%
25.5.29	BUY	22,500	-7.11%	0.22%
24.8.29	BUY	20,500	-20.23%	-10.54%
24.3.21	BUY	19,000	-23.12%	-12.63%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8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16%	1.84%	0.00%	100%

* 기준일: 2026년 8월 14일